

K리그 자존심 살린 광주FC, 아시아 여정 마침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실패

초호화 군단 알힐랄에 0-7 완패
움츠리지 않고 '광주'만의 축구
시·도민구단 첫 8강 '새 역사'도



K리그 구단 중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유일하게 올라 4강에 도전했던 광주FC의 여정이 알 힐랄전의 패배로 끝이 났다. 광주FC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를 보유한 전통 강호 알 힐랄을 상대로 끝내 전력 차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광주만의 축구로 기적을 일으켰고 끝까지 '버티는 축구'가 아닌 '맛서는 축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잘 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FC는 지난 26일(한국 시각) 오전 1시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ACLE 8강전 알 힐랄(사우디)와의 경기에서 0-7로 대패했다.

이날 광주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헤이스와 최경록을 투입으로 내세웠다. 가브리엘-박태준-이강현-아사니가 중원



광주FC가 26일(한국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ACLE 알 힐랄과의 8강전에서 0-7로 패배했다. 사진은 광주FC 헤이스가 이날 경기를 뛰고 있는 모습. **광주FC 제공**

을, 김진호-민상기-변준수-조성권이 수비를 하며 김강민이 골문을 지켰다. 상대가 알 힐랄이라고 무작정 수비에 더 집중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공격을 제어하면서 기회로 엿 봐 공격에 더 집중하는 모

습이었다. 이로 인해 경기 내내 알 힐랄의 강한 압박과 조직력에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며 시달려야 했지만, 광주는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아사니 같은

공격 자원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점수차가 적당히 벌어졌을 때 경기를 뒤집기보단 더 실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오후성, 주세종, 박인혁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뉴캐슬(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출신인 미트로비치와 유벤투스(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바이에른 뮌헨(독일 프로축구 리그)·FC 바르셀로나(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출신 칸셀루, 첼시 FC(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출신의 쿨리발리 등이 포진된 알 힐랄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완패했다.

하지만 광주의 ACLE 행보는 충분히 박수 받을만 한 업적을 세웠다는 평가다. 광주는 지난 2023년 K리그1 3위에 올라 ACLE 티켓을 얻었다. K리그 역사상 시·도민구단에서 최초로 8강에 진출한 광주는 첫 경기에서 일본 J리그 강호인 요코하마를 7-3으로 격파했다. 이후 리그 스테이지에서도 3승을 더 추가해 동아시아 리그 12팀 중 4위로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16강을 진출했다. 16강에서도 광주는 일본 챔피언 비셀 고베를 상대로 1차전 0-2 패배 뒤 2차전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기적의 드라마'를 완성하기도 했다. 이어 선수단의 가치가 무려 20배도 넘게 차이나는 '초호화 군단'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알 힐랄을 넘어 우승까지 노린 다며 출사표를 던진 광주는 아쉽게도 8강에서 멈췄다.

민현기 기자

KIA, LG 꺾고 위닝시리즈

광주-홈경기서 3-2 승리 이범호 감독 통산 100승 달성



김도영 선수가 돌아오고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다시 보여주 고 있는 KIA가 리그 1위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장식했다.

KIA는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리그 LG 트윈스와의 3차전 홈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이범호 KIA 감독은 역대 KBO 리그 59번째 100승 감독이 됐다.

경기는 KIA가 먼저 리드를 잡았다. 박찬호와 김선빈이 차례로 안타를 터뜨린 1회말 1사 2·3루 상황 최형우가 1타점 적시타를 성공시키며 1-0으로 KIA가 앞서갔다. 4회말에도 최형우가 해냈다. 최형우는 LG 선발 임찬규의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만들어 내

며 2-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하지만 6회초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의 투구가 흔들리자 이를 놓치지 않고 LG의 거센 반격이 시작됐다. 네일이 타자 2명을 연달아 출루시키자 오스틴의 1타점 적시타로 2-1이 됐다. 이후 문보경을 병살타로 잡아냈지만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가며 2-2 승부는 원점이 됐다.

7회말 다시 KIA가 승기를 잡았다. 2사 1·2루 상황 김선빈의 1타점 1루타로 3-2가 됐다.

이날 선발 제임스 네일은 6이닝 4피안타(0피홈런) 2실점(2자책) 4사사구 3탈삼진으로 호투를 선보였다. 네일은 24명의 타자를 상대로 최고 시속 150km의 투심(31개)과, 스위퍼(29개), 체인지업(23개), 직구(6개)를 골라 던지며 LG 타자들을 요리했다. 7회부터 투입된 불펜은 전상현(1이닝 무실점), 조상우(1이닝 무실점), 정해영(1이닝 무실점)이 LG의 공격을 틀어막으며 승리를 지켜냈다.

민현기 기자

‘친선·화합 축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료

전남 특별상·성취상 1위 등 광주 줄넘기·빙상 종합 3위 생활체육동호인 기량 뽐내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화합 축제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전남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24~27일 전남 일원에서 4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축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2만267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총 41개 종목, 1655명(선수 1329명·경기임원 135명·본부임원 191명)이 참가해 금메달 27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67개 등 총 12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금 14개, 은 12개, 동 13개)보다 88개의 메달이 증가한 수치로, 전남 생활체육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

다는 평가다.

전남선수단은 종합시상에서 개최 시도의 노고를 인정하는 특별상과 개최종목 경기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시·도에게 주어지는 경기력상 2위, 전년대비 종합성적이 향상된 시·도에게 수여하는 성취상 1위를 수상했다.

단체 성적도 두드러졌다. 전남은 배구·배드민턴·요트·족구·파크골프·핸드볼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검도·씨름 종목에서는 종합 2위, 당구·소프트테니스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했다.

특히 그라운드골프 단체전(74세 이하)과 배구 남자일반부에서는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 부문에서도 뛰어난 활약이 이어졌다.

육상 트랙종목에서 오은숙씨는 49세 이하부 100m(14초70)와 400m(1분09초03)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성봉·오이순 부부는 각각 육상 포환

던지기 79세 이하부, 69세 이하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이순씨는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오만평 씨도 59세 이하부 포환던지기에서 대회 2연패(2024-2025)를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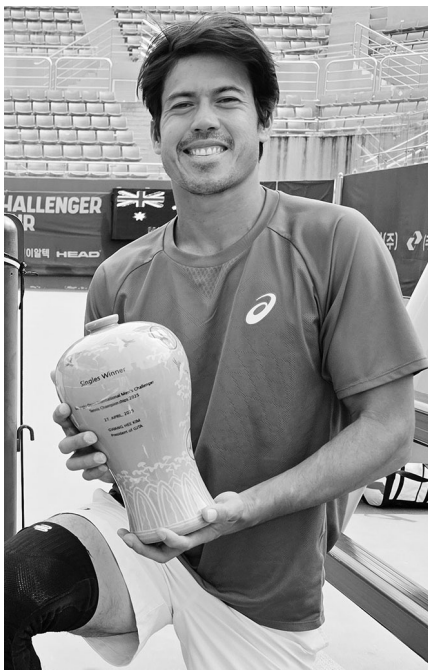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선수단은 792명이 파크골프 등 34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15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26개 등 총 5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선수단은 골프 종목에서 종합 2위, 줄넘기·빙상 종목에서 종합 3위에 입상했다. 축구와 족구도 종합 4위에 올라 광주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 당구 74세 이상 케롬프리큐션 단체전을 비롯해 10개 종목에서 1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축전 개최식에 16번째로 입장한 광주선수단은 오는 9월에 열린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홍보를 펼쳤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제이슨 쿠블러, 2025 광주오픈 단식 정상

챌린저 우승은 이번이 9번째 복식서는 호·로미오스 우승

제이슨쿠블러(31·호주·307위)가단식 우승으로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오픈 챌린저 2025에서 단식 정상에 오르며 올해 대회 피날레를 장식했다. (사진)

제이슨 쿠블러는 27일 광주광역시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단식 결승에서 알리베크 카즈마조프(22·러시아·세계 랭킹 185위)와 3시간 6분의 혈투 끝에 2-1(7-5, 6-7, 6-3)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쿠블러의 챌린저 우승은 이번이 9번째다.

쿠블러는 단식 32강전에서 권순우(한국)를 2-0(6-3, 6-4)으로 물리친 뒤 16강전에서 1번 시드였던 아담 윌튼(호주)을 상대로 2-0(6-4, 6-1)으로 완파했다. 이어 8강전에서 휴고 그리니에르(프랑스)를 2-0(6-2, 6-1)으로, 준결승전에서 4번 시드 트리스탄 스콜케이트(호주)를 2-0(7-5, 6-4)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쿠블러는 결승에서 큰 신장에서 나오는 파워 스트로크를 앞세운 커즈마조프를 상대로 정교함으로 맞섰다.

쿠블러는 1세트에서 한 포인트씩 주고 받는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다 마지막 집중력에서 앞서며 7-5로 세트를 뒀다. 2세트에서도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6-7로 내렸으나 3세트에서 상대 서비스 브레이크를 잡아 5-3을 만들며 승기를 잡았고, 이후 연속 게임을 뺏으며 6-3 승리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쿠블러는 시상식에서 "2세트가 힘든 경기였는데 많은 갤러리들의 응원에 힘입어 우승할 수 있었다"며 "볼 퍼슨과 심판, 대회 관계자 등 이번 대회를 만들어 준 모든 이들과 나를 향해 보내준 응원, 박수에 감사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전날 열린 복식 결승에서는 레이 호(대만)·매튜 크리스토퍼 로미오스(호주) 조가 바질 커코프(미국)·바트 스티븐스(네

덜란드) 조를 2-0(6-3, 7-6)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오픈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광희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광주오픈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며 "협회 임원과 이사, 심판진 등 모든 대회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광주시민들의 성원으로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내년 대회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시민이 함께 하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광주 축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동환 기자